

롤러코스터 피 양방향 베팅... 인버스·레버리지 거래량 상위권 양분

6~7월 ETF 거래량 상위 5개에 인버스 3종·레버리지 2종 포진
삼성전자·SK하이닉스 중심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거래도 급증
급등락 장세에 단타 수요 몰리며
짖은 손바뀜이 변동성 더 키워

자영업자 박모(40)씨는 SK하이닉스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했다가 지난달 23일 큰 손해를 봤다. “폭락은 기회”라며 집에 있던 금을 팔아 같은 상품을 더 사들였다. 박씨는 “계속 주식장만 보니 삶이 주객전도된 느낌”이라면서도 “기만히 있으면 벼락거지가 될까 봐 두렵다”고 말했다. 요즘 ‘단타’(짧은 기간 사고 팔기)에 빠진 직장인 최모(29)씨는 “장기 투자가 정답인 걸 알지만, 변동성이 너무 심해 기다리는 동안의 기회비용이 크게 느껴진다”며 “급락장에 손 놓고 있는 것보다 자주 매매하면서 하루에 밥값만 벌자고 마음을 먹으니 속이 그나마 편하다”고 말했다.

코스피가 하루에도 수백 포인트씩 널뛰



ChatGPT로 생성한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로 쏠리는 개인 투자자 자금’ 관련 이미지.

는 장세가 이어지자,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 상장지수펀드(ETF)를 사고파는 단타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ETF 거래량 상위 5위 내 인버스 상품이 3종, 레버리지 상품이 2종 각각 포함됐다. 주식 거래량은 일정 기간 실제로 체결된 주식(계좌) 총 수량을 말한다. 거래량이 많다는 건 해당 기

간 매수·매도가 활발하게 이뤄졌다는 의미다.

거래량 1위는 ‘KODEX 200선물인버스 2X’로, 해당 기간 총 3146억주가 거래됐다. 2위와 5위는 각각 ‘KODEX 인버스’(304억주)와 ‘TIGER 200선물인버스 2X’(29억주)가 이름을 올렸다.

이들 ETF 3종은 모두 코스피 200 선물 지수 하락에 베팅하는 상품이다. 특히 K

ODEX 200선물인버스 2X와 TIGER 200선물인버스 2X는 지수 하락 시 2배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른바 ‘곱버스’ ETF다.

3위는 ‘SOL SK하이닉스선물단일종목레버리지’(50억주), 4위는 ‘KODEX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42억주)였다.

코스피가 상승가도를 달리던 연초부터 지난 5월까지 ETF 거래량 상위권은 대부분 인버스 상품이 차지했다. 상위 5개 중 4개가 인버스였다.

코스피가 가파르게 오르자 손실물이 높아진 인버스를 팔거나 반대로 헤지 수단으로서 인버스를 매수하는 경우가 모두 늘어나면서 거래량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달 18일 사상 첫 ‘9천회’(코스피 9000)를 달성한 후 지난 9월 7291.91까지 밀리는 등 코스피가 급등락하자 상승과 하락에 베팅하는 수요가 함께 확대됐다.

또 연초부터 지난 5월까지 거래량 상위 5개 ETF 중 레버리지 상품은 ‘KODEX 2차전자산업레버리지’가 유일했던 것과 달

리, 6~7월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2종이 이름을 올렸다.

상위 10개로 확대해서 보면 ‘TIGER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6위), ‘KODEX 삼성전지단일종목레버리지’(7위), ‘TIGER 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10위)까지 총 5개가 포함됐다.

거래량 상위 10개 중 절반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인 것이다.

문제는 이런 짚은 손바뀜이 다시 주가 변동성을 키우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코스피 변동성이 커지자 투자자들은 단기매매가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짧은 시간에 ‘한 방’을 노리는 레버리지 상품으로 몰리고 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대상으로 한 단타 쏠림이 특히 심하다. 레버리지 상품의 공급이 기초자산인 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가를 흔들고, 다시 코스피 전체 변동성으로 번지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장세가 뚜렷하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metro

스페이스X, 한 달 만에 우주 ETF 5000억 매도

국내 7개 우주 ETF 개인 순매도
한 달 평균 수익률 마이너스 14%
공모주 편입 무산에 실망감 확산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상장된 지 한 달이 된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은 스페이스X를 편입(예정)한 국내 우주 관련 ETF(상장지수펀드)를 5000억원어치 팔아 치운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기대와 달리 국내에 공모주가 배정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모가에 스페이스X를 편입하지 못한 데다가 수익률이 크게 하락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스페이스X가 상장한 지난달 1일부터 지난 10일까지 국내 7개 우주 ETF에서 개인 순매도 금액은 총 493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7개 ETF 중 개인의 매수가 매도보다 높은 ETF는 단 1개도 없었다.

이들 7개 ETF 평균 수익률은 -14.0%로, 지난달 12일 4조 6463억원이었던 이들 ETF의 총 순자산은 지난 9월 2조 8599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순자산 3분의 1(1조 7864억원·38.45%) 이상이 증발한 셈이다.

ETF별로 보면 TIGER 미국우주테크에서 가장 많은 3046억원의 개인 순매도가 발생했다. 이 ETF는 스페이스X를 25.16% 비중으로 담고 있다.

이어 1Q 미국우주항공테크(14.58% 비중) 548억원, KODEX 미국우주항공(23.27% 비중) 517억원, ACE 미국우주테크액티브(29.91% 비중) 482억원 등의 순으로 순매도가 많았다.

TIGER 미국우주테크에 개인 순매도가 집중된 것은 해외주식형 ETF 1위인 미래에셋자산운용에 대한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급격히 전환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스페이스X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여전하다. 우주 인프라와 통신망, 인공지능(AI) 컴퓨팅 역량을 결합한 차세대 인프라 플랫폼으로 도약한다면 기업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모건스탠리의 애덤 조너스 애널리스트는 최근 스페이스X에 대해 투자 의견 ‘비중 확대’를 제시하고 목표주가를 300달러로 잡았다. 7월 9일 종가 152.16달러 기준으로 두 배가량의 상승 여력이 있다는 판단이다. 강세 시나리오에서는 600달러, 약세 시나리오에서는 75달러를 제시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NH-Amundi, 청년들에 자산운용 실무기회

디지털마케팅 등 4개 직무 경험
8주간 멘토링·팀 프로젝트 수행

NH-Amundi자산운용은 ‘청년 일 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해 청년 62명에게 자산운용 현장의 실무 경험을 제공했다고 12일 밝혔다.

청년 일 경험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 주관하는 청년 고용 지원 정책으로 만 15세~34세 미취업 청년에게 민간 기업의 직무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NH-Amundi자산운용은 운영기관 크래프박스가 진행한 프로젝트형 지원사업에 참여했다. 참여 청년들은 지난 5월 사전 직무교육을 거쳐 6월 말까지 약 8주간 각 분야 실무진의 멘토링 아래 팀 단위 프

로젝트를 수행했으며 지난 3일 성과보고회를 통해 결과를 발표했다.

회사는 ▲디지털마케팅 ▲퇴직연금마케팅 ▲채권리서치 ▲ESG리서치 등 4개 직무 분야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청년들은 각 프로젝트를 통해 디지털 채널 마케팅 기획 및 콘텐츠 제작·운영, 국내외 펀드 분석 및 고객 맞춤형 포트폴리오 제안서 작성, 기업 신용분석 및 채권 발행 타당성 검토, 기업 ESG 평가 보고서 작성 등 업무를 경험했다.

각 프로젝트는 참여 청년이 실제 직무 산출물을 완성하도록 설계됐다. 회사는 직무 역량 중심의 채용 환경 속에서 청년들이 자산운용 현장을 직접 경험하며 실무 역량을 키우고 금융업계 진입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허정윤 기자

“휴가철 장거리 운전·집중호우 사고 위험 대비하세요”

금감원 Q&A

차량 침수사고 65% 장마철 집중
사고 땀 가드레일 밖 먼저 대피
긴급대피알림 사칭 문자도 주의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장거리 운전과 집중호우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고속도로 2차 사고와 차량 침수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고 예방 요령과 자동차보험 활용 방법을 숙지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고속도로 2차 사고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인명 피해 증가 속도가 사고 건수보다 더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량 침수사고 역시 연간 사고의 약 65%가 장마 기간에 집중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무엇보다 자신의 안전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한국도로공사의 ‘비트박스’



ChatGPT로 생성한 여름 휴가철 장거리 운전과 집중호우에 대비한 안전운전 수칙을 나타낸 이미지.

행동요령을 소개하며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연 뒤 가드레일 밖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고, 이후 스마트폰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2차 사고의 치사율은 일반 교통사고보다 약 5배 높아 차량 안이나 도로 위에 머무르는 행동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 이후에는 사고 현장을 촬영해 증거를 확보하고, 동승자

나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 등을 함께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가입한 보험회사 콜센터에 사고를 접수하고, 특히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찰에 즉시 신고해 안내에 따라 조치해야 합니다. 대인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신고나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뺑소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장마철에는 평소보다 안전운전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집중호우가 예상되면 가급적 운행 일정을 조정하거나 우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출발 전에는 와이퍼와 타이어 상태를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침수 위험지역에서는 보험개발원의 ‘자동차 긴급대피알림 서비스’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긴급대피알림을 받으면 즉시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 인명과 차량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금감원은 긴급대피알림은 별도 앱 설치나 특정 인터넷 주소 접속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허정윤 기자

교보증권, 비전 2030 선포 종투자 도약 속도

미래형 비즈니스·투자 경쟁력 강화
AI 기반 디지털 전환 전략도 구체화

교보증권이 2030년을 목표로 한 새 비전을 발표하고 중장기 성장 전략을 구체화했다. 미래형 비즈니스 역량과 투자 솔루션 경쟁력 강화를 앞세워 종합금융투자회사로의 도약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교보증권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2026년 하반기 경영전략회의 및 비전 2030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 및 부·점장 120여 명이 참석해 상반기 영업 성과 및 재무 현황을 점검하고 사업 부문별 핵심 추진 과제를 공유했다.

또한 임직원 디지털 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박성혁 AI 비즈니스 전문가를 초청 ‘AX(인공지능 전환)’ 시대, 증권업의 재발견’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AI 기술이 금융산업에 미칠 변화와 증권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 방안을 살펴

보며 디지털 전환의 방향성을 함께 모색했다.

이어 열린 ‘비전 2030’ 선포식에서는 교보증권의 새로운 비전인 ‘혁신과 차별화된 전문성으로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종합금융투자 파트너’를 공식 발표했다.

이번 비전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사내 공모를 통해 선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수립돼 그 의미를 더했다. 교보증권은 ‘비전 2030’ 실현을 위해 ▲미래형 비즈니스 역량 강화 ▲신뢰 기반의 동반자적 가치 지향 ▲전방위 투자 솔루션 경쟁력 제고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석기 교보증권 대표이사는 “새로운 비전 아래 핵심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견고히 구축해 나가는 지금이 도약의 전환점”이라며 “지피지기(知彼知己)의 자세로 시장의 흐름을 통찰하고 우리만의 강점을 극대화하여 어떠한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을 완성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신하은 기자